

## 한일 원전 안전 및 해체 포럼 개최

원전 안전, 해체 등 양국 간 현안 공유 및 협력



포럼 전경



짧은 기간에 포럼 개최 준비로 애를 쓴 KAIF와 JAIF 임직원들.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일본원자력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한일 원전 안전 및 해체 포럼」이 5월 8일 일본 도쿄 소재 가조엔(Gajoen)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한중일 정상회담(5.9) 하루 전에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 일본의 호사카 신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처 차장, 타카하시 아키오 일본원자력산업협회 이사장을 비롯해 양국 원자력기관 주요인사 25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포럼에서는 도쿄전력 마수다 나오히로 부사장의 '후쿠시마 원전 현황', 전력사업자연합회 토미호카 요시히로 사무국장의 '신규 인허가 규제와 원전 재가동', 한수원 중앙연구원 나장환 안전기술센터장의 '원전 안전 및 극한재해 대응', 한국전력기술 유정무 상무의 '고리1호기 해체종합설계 추진 현황' 등이 발표되어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일본원자력산업협회는 1973년 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총 34회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양국간 원전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해오고 있다.

## 미국원자력협회(NEI) 연차대회 참석

Korsnick NEI 이사장과 협력 방안 논의



NEI 연차대회 전경

미국원자력협회(NEI, Nuclear Energy Institute)가 주최한 제65회 연차대회(NEA, Nuclear Energy Assembly)가 5월 21일~23일 미국 애틀랜타 Atlanta Marriott Marquis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NEI 연차대회에 참석한 한국원산 강재열 부회장은 Maria Korsnick NEI 이사장을 면담하고 KAIF와 NEI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5월 21일에 개최된 개회식에서는 Georgia Power의 Paul Bowers 사장과 Maria Korsnick NEI 이사장의 개회사, 조지아 주 Nathan Deal 주지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개회세션에서는 Kristine Svinicki NRC 위원장과의 대담, 미국 3개주 (메릴랜드, 코네티컷, 조지아) 하원의원 및 공공서비스위원장들의 원자력에 대한 패널토론,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한 산·학·연 및 환경단체 패널토론이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약 1,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컨퍼런스 기간 중에는 공급자 전시회 (Supplier Expo)가 웨스팅하우스, GE, 벡텔 등 28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57개 부스 규모로 개최되었다.